[기출의 파급효과 국어 주간지]

Run-up (독서)

- 1주차 -

제작 : 박영호, 유정혁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B [17~20]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莊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 호접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홀린 듯 쫓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일의 의의
②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
③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위해 장자가 제시한 수행의 방법
④ 자아와 세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위한 정적 상태의 극복
⑤ 마음의 두 가지 상태와 그 상보적 관계에 대한 장자의 견해

2.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하겠군.
②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하겠군.
③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과 같겠군.
④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겠군.
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다는 말이군.

3. <보기>에 나타난 순자의 입장에서 윗글의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둔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혼란이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①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
③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주는 바탕이 된다.
④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미혹(迷惑)된
② ㉡ : 수용(受容)하고
③ ㉢ : 탈피(脫皮)하여
④ ㉣ : 출현(出現)할
⑤ ㉤ : 초월(超越)하여

문장 단위 사고 교정 - #1문단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莊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 호접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2문단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 홀린 듯 쫓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3문단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4문단

그렇다면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문단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莊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바로 예시가 등장합니다. 무엇에 대한 예시일지, 저 나비 꿈 이야기가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겠어요.

> 이 호접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물아일체'가 핵심이군요. 이와 관련된 일화가 또 등장하겠어요. 그럼 물아일체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야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화제가 되는 거예요.

#2문단

>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홀린 듯 쫓는 이야기이다.

먼저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간 줄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쫓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물아일체 꼭 기억합시다.

>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장자는 바깥 사물, 즉 기이한 새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몰입을 해버렸어요. 장자는 이러한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합니다. 물아일체! 기억하셔야 해요.

>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문제점이 제시됩니다. '사로 잡혀 끌려 다니는 꼴'이니 당연히 다른 걸 돌아볼 여력이 없겠죠? 납득하고 넘어갑시다.

>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이러한 마음은 맹목적인 욕망이기에 감각적 체험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해요. 타인의 정원을 침범한 줄도 모르게 새를 쫓았으니 끌려다닌 것이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시 재진술하고 있어요. 이게 물아일체와 어떻게 연결될지 뒤에서 확인합시다.

#3문단

>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또 다른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남곽자기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한 이야기예요. 앞의 예시와 비슷하기도 하고, '물아일체'라는 화제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해요. 앞에서는 대상을 왜곡하거나 배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분별 작용' 즉, 구분하는 그런 태도를 없앴다는 것이에요.

>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앞의 내용을 재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첫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야기이고, 이번 이야기는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 천지만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네요. 둘 다 어떠한 것을 잊는 것은 같지만 잊게 됨으로써 얻는 것은 매우 다르죠? '결과'를 비교지점으로 잡고 읽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를 잊지만, 3문단의 예시(명경지수)가 더 올바른 물아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문단

> 그렇다면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의 예시를 재진술하는 문장입니다. 첫째 이야기는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에요. 사실상 3문단 마지막 문장을 읽고 잡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비교지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 여기서라도 '잊은 자아'를 비교지점으로 잡아줍시다.

>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재진술 문장입니다. 참된 자아를 잊고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으면, 자아는 그 대상에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네요. 대상에게 종속되는 것, 나비에게 홀려서 빠진 예시와 같습니다. 이미 2문단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편협한 자아를 잊는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 세계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분별 작용이 사라지고 '고요한 마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아찝에서 벗어나겠죠. 또,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는 결국 앞에서 본 내용과 같습니다.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계속 재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ㄱ럼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겠죠? 올바른 물아일체입니다.

#5문단

>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장자는 이러한 합일의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먼저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아와 타자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참된 자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네요. '참된 자아'를 잊으면, '나'의 존재가 온전히 전제되지 못하니까요.

>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시까지 주고 있어요. 내가 편견 없이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내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이 존재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편협한 자아를 잊고 꽃과 합일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겠네요. 그리고 꽃과 내가 모두 전제되고 있으니 상호 의존성도 만족하는 것이네요.

>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해요. 명경지수! 기억나시죠?

>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편협한 자아를 잊고 명경지수에 도달해야 한다! 물아일체!

>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장자가 호접몽을 통해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거였어요. 위에서 말한 수행을 통해 나비와 일체하는 자아에 도달한 것이죠.

>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가 끝맺는 까닭이 바로 이거란 거죠. 물아일체를 통해 호접몽과 같이 물체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생각했지만, 결국 '편협한 자아'를 잊고, 명경지수에 도달하는 게 올바른 물아일체였던 겁니다.

1.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①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일의 의의

→ 고도의 몰입은 어딘가에 홀리는 부정적인 면이 있죠?

②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

→ 지문 내용을 완벽히 요약한 문장이네요. 옳습니다.

③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위해 장자가 제시한 수행의 방법

→ 정신과 육체의 조화? 이런 내용은 없어요.

④ 자아와 세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위한 정적 상태의 극복

→ 정적 상태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⑤ 마음의 두 가지 상태와 그 상보적 관계에 대한 장자의 견해

→ 마음의 두 가지 상태는 맞지만 상보적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2.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①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하겠군.

→ 맞죠?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은 합일의 경지에 이른 마음을 뜻하니까요.

②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하겠군.

→ 감각적 경험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는 했지만 경험 자체를 배제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③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과 같겠군.

→ 마음을 바깥 사물에 뺏기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 것이라고 했어요.

④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겠군.

→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요. 이는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겠죠?

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다는 말이군.

→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3. <보기>에 나타난 순자의 입장에서 윗글의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③

〈보 기〉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둔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혼란이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 순자의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을 우위에 두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질서 혼란은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끼리 둘러쌓인 세계에 대한 학습을 강조해요. 또한 인간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도 해요. 장자처럼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장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어요.

①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맞죠? 장자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②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

→ 이것 또한 장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③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주는 바탕이 된다.

→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장자의 의견이죠? 장자의 의견이 좋다고 순자가 말할까요? 틀렸죠.

④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장자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것도 옳습니다.

⑤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이것 또한 장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① ㉠ : 미혹(迷惑)된
② ㉡ : 수용(受容)하고
③ ㉢ : 탈피(脫皮)하여
④ ㉣ : 출현(出現)할
⑤ ㉤ : 초월(超越)하여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B [21~24]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②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④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②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3.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가시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감소했으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①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④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⑤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문장 단위 사고 교정 - #1문단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2문단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3문단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4문단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문단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한답니다. 지식 경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의 정의를 알려줍니다. 요약하자면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에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뒤에서 등장할 것 같습니다.

#2문단

>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본 지식 경영과 관련된 '암묵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서술의 초점 잡고 들어갑시다.

>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암묵지의 정의입니다. 주체에게 '암묵'적으로 체화된 '지'식이라 암묵/지인가봅니다. 이 암묵지를 통해 모든 지식이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게 어떻게 지식 경영과 이어질까요?

>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과학적 지식이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겠죠?

>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재진술 문장이네요.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재진술입니다.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 +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적 행위'는 암묵적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비유적인 재진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 이외에 암묵적인 요소가 더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 폴라니는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 또한 이런 암묵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군요.

#3문단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이번엔 노나카의 입장이 제시됩니다. 그는 폴라니의 이론을 응용해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고 하네요. 그럼 앞에서 본 '암묵지' 개념이 또 등장하겠죠? 앞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해봅시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노나카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지식으로 파악했어요.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 새롭게 '명시지'라는 개념을 추가했어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암묵지는 주관적이고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이고 명시지는 구체적인 개념이잖아요? 즉 '명시적'인 지식이니까 명시/지입니다. 그럼 형식화된 지식인 명시지가 공유하기 쉽다는 말은 쉽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4문단

>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노나카의 입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암묵지와 명시지로 지식을 분류한 것에 기초해, 노나카는 지식 변환 과정을 제시합니다. 과정이 등장하면 항상 과정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공동화'가 나옵니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해요. 너도 나도 '공동으로' 숙지하는 거니까 공동/화입니다.

>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그 다음 '표출화'가 나옵니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 변환되는 것이에요. 명시적인 명시지로 '표출'되는 것이니, 표출/화입니다.

>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마지막으로 '연결화'와 '내면화'가 나와요. 명시지들을 결합해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이 '연결화',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을 '내면화'라고 정의했습니다. 명시지끼리 결합·연결되는 것이니, 연결/화, 전달받은 명시지를 다시 주체가 스스로 암묵지화(내면화)하는 것이니 내면/화입니다.

>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나카는 이러한 네 가지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이 혁신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것이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의 핵심인 거죠.

#5문단

>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노나카의 말처럼 지식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과정의 참여가 전제되어야겠죠?

>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무형화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 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서 공유하기 힘들잖아요. 확실히 객관화되고 명시된 것이 아니니까요.

>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그쵸?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구분하는 것도 힘들고 계량화하기도 힘들잖아요. 아무리 명시지라 하더라도, 계량화하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식'이니까요.

>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식 경경의 성패는 구성원들이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지식 경영의 정의를 떠올리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학습과 능력을 강조하는 게 지식 경영이잖아요. 즉, 지식의 공유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구성원들이 일단 참여를 해야 지식을 공유하겠죠? 참여가 전제되어야 지식의 공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1.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①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은 없어요.

②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 지식 변환의 단계?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 맞는 내용이죠?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그것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마지막 문단에 제시하고 있어요.

④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폴라니와 노나카의 견해를 순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와 대비되는 경영론은 소개되지 않아요.

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 두 견해가 나오는 건 맞지만 장단점을 비교한다? 그런 내용도 없죠.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①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폴라니는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어요.

②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모든 지식에는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이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죠?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노나카는 암묵지보다 명시지가 더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반대되는 설명이네요.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기업의 조직 구조가 혁신되어야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된다고 했죠?

⑤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 폴라니와 노나카가 강조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3.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서로 접촉하는 것은 '공동화'이지 '연결화'가 아니에요.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 특허 기술과 같은 명시지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한 것은 '연결화'로 봐야 겠죠?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 '내면화'는 명시지를 숙련해서 암묵지로 전환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명시지는 매뉴얼이 되겠고, 암묵지는 감각적 지식으로 볼 수 있겠죠? 옳은 설명이에요.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을 학습해서 조종술에 능숙해진건 '내면화'로 볼 수 있겠죠?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 동물 현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한 것을 암묵지로 볼 수 있겠고, 그것을 디자인으로 완성시켰으니 명시지로 변환한 거예요. 그럼 이건 '표출화'겠죠.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②

〈보 기〉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가시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감소했으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 F사라는 회사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F사는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는 보상하지만, 무형적 지식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직원들의 헌신도 감소하고, 부서의 업무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구요. 여기서 가시적인 지식은 명시지가 될 것이고, 무형의 지식은 암묵지가 돼요. 그러면 암묵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겠죠?

①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창의적 아이디어인 암묵지를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해줘야 하죠?

②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 이건 명시지죠. 지금 <보기> 상황은 암묵지를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명시지를 권장한다? 완전 반대되는 말이죠.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 집단적 업무 역량을 암묵지로 볼 수 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④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무형의 지식이 곧 암묵지예요. 암묵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암묵지가 활성화되겠죠?

⑤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이것도 옳아요. 암묵지를 존중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암묵지가 활성화되겠죠?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AB [27~30]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
②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쟁
③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종류
④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와 문제점
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②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③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④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

3.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
③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
④ ㉣은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⑤ ㉤은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자기의 기술자료를 유용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되겠군.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겠군.
③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경우에는 배상금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겠군.
④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를 이용할 때보다 이 규정을 이용할 때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더 커지겠군.
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겠군.

[1~4]

문장 단위 사고 교정 – #1문단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2문단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3문단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4문단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5문단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전적 제재 수단에 대해 설명해주겠지요?

#2문단

>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다고 해요.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각의 차이 잡고 넘어갑시다. '시행 목적'을 비교지점으로 잡고 가요.

>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담합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담합해서 가격 인상을 했다가 적발됐을 때, 기업들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대요. 어떤 수단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기업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인상한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제재가 내려졌죠? 손해 배상, 벌금, 과징금 전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 번 잘못하면 3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네요.

#3문단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손해 배상 소송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대요. 그 대신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 수단이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서술의 초점이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 맞춰집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문제점이 제시됩니다. 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 수단이 단독으로 억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해요.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말이죠. 적발되지 않으면 과징금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럼 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등장하겠네요.

>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 이 과징금과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요. 직접적인 배상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으니까요. 앞에서 본 목적 기억나시죠?

>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낮은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겠네요. 다음 문단의 서술의 초점 잡고 넘어갑시다.

#4문단

>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는 앞에서 본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입니다. 단어 그대로입니다. 징벌적//손해 배상//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 더해 가해자를 징벌하는 성격이 있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과징금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배상이 가지 않았는데,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배상이 가네요. 징벌적//'손해 배상 제도'이기 때문이겠죠?

>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일반적 손해 배상 제도는 손해액을 초과해서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제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와의 차이점입니다. '배상금'이 '징벌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손해 배상 제도의 특징인 거예요.

> 그런데 ㉢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도 있는데,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복 제재의 문제가 생겨요. 1문단에서 세 가지의 제재가 내려졌지만 중복 제재가 아닌 예시가 나왔었죠? 차이를 구분합시다. 얘는 '손해 배상 제도'에 '징벌적' 셩격이 가미되어서 중복 제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뒤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찬반의 입장이 나뉠지가 등장하겠습니다. 뒤에서 찬반 입장의 핵심을 꼭 짚으면서 넘어갑시다.

#5문단

>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우선 반대론자의 입장입니다. 얘네는 배상금은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봐요. 손해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되니까 횡재라고 보는 거겠죠?

>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복 제재'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해요.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에 '벌금(징벌적 성격)'이 함께 부과되면 중복 제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에서 이해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이번엔 찬성론자의 입장입니다. 얘네는 이 배상금이 피해자들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봅니다. '횡재'와 대비된다는 느낌 드시나요?

>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어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대 입장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형사적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벌금'과의 중복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징벌적 배상금'을 '민사적'으로 보는지, '형사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나뉩니다. '징벌적 배상금의 성격'을 비교지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 점을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 ④

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

→ 피해자가 손해 배상금에 더해 징벌적 배상금을 받는 것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라고 했어요.

②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쟁

→ 반대론자와 찬성론자에 대한 논쟁이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었죠.

③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종류

→ 손해 배상, 벌금, 과징금 등이 있어요.

④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와 문제점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자체의 사례와 문제점은 없죠?

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

→ 적발 가능성이 낮은 불법 행위에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①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 과징금의 정의 그 자체예요.

②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 2문단에 예시로 기업 담합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③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 손해 배상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해요.

④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 중복 제재가 아니라면 두 가지 이상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어요.

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

→ 벌금보다 '과징금'으로 제재한다고 했죠?

3.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① ㉠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금전적 구제를 의미하죠.

② ㉡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손해 배상금 + 징벌적 배상금을 받는 것이기에 손해액을 초과해 배상받는 것이죠.

③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

→ 맞습니다.

④ ㉣은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 벌금은 형사적 제재 수단을 의미합니다!

⑤ ㉤은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 즉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의미해요.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①

〈보 기〉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자기의 기술자료를 유용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규정에서 피해자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개념을 활용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①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되겠군.

→ 배상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틀렸네요.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겠군.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의의 그 자체예요.

③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경우에는 배상금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겠군.

→ 맞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손해 배상금 + 징벌적 배상금이기 때문이죠.

④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를 이용할 때보다 이 규정을 이용할 때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더 커지겠군.

→ 일반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손해액을 초과해서 배상받기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겠군.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안이기에 그렇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9AB [27~30]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1902년)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

스타이컨은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로댕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
②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③ 스타이컨의 사진은 대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회화주의 사진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④ 로댕과 스타이컨은 조각의 역할이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스타이컨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고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로 실현되었다.

2. ㉠과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스타이컨의 의도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쓴 것은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였다.
②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은 <빅토르 위고>와 로댕 간의 명암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③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보며 같은 자세로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④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근경의 사진과 합칠 때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⑤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한 것은 대리석상과 청동상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3. 다음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 중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스타이컨의 작품을 감상하고 글을 써 보자.

학습활동 에 나는, 사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진이 예술 작품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을 보고, ⓐ 사진도 예술 작품으로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라는 스타이컨의 생각에 동감하게 되었다. 특히 ⓑ 회화적 표현을 사진에서 실현시키려 했던 스타이컨의 노력은 그 예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 스타이컨이 빅토르 위고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창작의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 스타이컨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할 것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을 예술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한 스타이컨의 창작열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이 소설가는 개성이 살아 있는 문체로 유명하다.
② 아궁이에 불씨가 살아 있으니 장작을 더 넣어라.
③ 어제까지도 살아 있던 손목시계가 그만 멈춰 버렸다.
④ 흰긴수염고래는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 중 가장 크다.
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1~4]

문장 단위 사고 교정 - #1문단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2문단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1902년)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

#3문단

스타이컨은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4문단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5문단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사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9세기 초까지는 근대 문명이 만든 기술적 도구,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고 해요. 그럼 이후에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했을까요? 사진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겠다는 점 생각하면서 넘어갑시다.

>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바로 나옵니다.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통해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대요. 위에서는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주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시도를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관을 표현하는지, 그 방법에 주목합시다.

>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주관을 드러내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빛의 처리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해 '예술성 있는 사진'을 찍기를 추구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회화'적 표현을 몹아했으니, 회화/주의 사진입니다. 이 회화주의 사진과 관련된 내용이 화제겠네요.

#2문단

>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1902년)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화주의의 예시가 등장합니다. 이 작품이 왜 회화주의를 대표하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어떻게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했을지 궁금해하면서 넘어갑시다.

>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계속 예시를 설명합니다.

>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스타이컨이 사용한 예술적 기법이 등장합니다. 사진을 합성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합성을 통해 예술성을 추구하고 있네요!

>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예시는 단순히 근경와 원경을 합성한 게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스타이컨이 의도한 대로' 자리 잡게 합성한 사진이에요. 자신의 '주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요.

> 또한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

또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게끔 감광액을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1문단에서 회화적 처리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이 있다고 했죠? 어둡게 보이는 근경과 밝게 보이는 원경을 처리한 것그리고 피사체의 질감을 억제시키는 감광액의 사용. 이것들을 회화적 처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3문단

> 스타이컨은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네. 계속해서 예시가 등장합니다. 회화주의 사진의 핵심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

>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

로댕의 입장이 곧 회화주의와 비슷합니다. 이 생각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스타어컨은 사진이나 조각으로 '작가의 주관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문학 작품처럼 사진이나 조각도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댕도 이에 매우 동감했습니다. 그러기에 로댕이 기꺼이 스타이컨의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어요. 결국엔 스타이컨이 '회화주의 사진'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성과 주관을 드러냈다는 게 핵심이네요. 예시를 읽을 땐 반드시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 떠올리셔야 합니다.

#4문단

>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이 사진에서는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해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어요. 감광액을 사용한 것을 말하는 거죠. 회화적 기법을 설명하려고 하나봅니다.

>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해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도 감광액으로 처리해 사람처럼 보였겠죠?

>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어둡게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과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사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런 구도를 통해서 로댕의 작품도 문학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주관을 드러낸다는 말을 합니다.

#5문단

>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하게, 원판을 합성,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줍니다. 회화적 기법을 통한 사진! 지문의 화제를 재진술하는 문단이에요.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로댕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

→ 스티어컨과 로댕 둘 다 사진, 조각이 문학처럼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완전히 옳은 설명이에요.

②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 빅토르 위고의 견해는 지문 어디에도 없어요.

③ 스타이컨의 사진은 대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회화주의 사진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 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반하는 것이 회화주의죠?

④ 로댕과 스타이컨은 조각의 역할이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은 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말이죠? 회화주의랑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⑤ 스타이컨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고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로 실현되었다.

→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질감 변화는 감광액을 사용한 것이지 대립적 구도는 아니에요.

2. ㉠과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스타이컨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①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쓴 것은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였다.

→ 피사체들이 스타이컨의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합성 기법을 사용했죠?

②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은 <빅토르 위고>와 로댕 간의 명암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 밝은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근경에서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구요. 이 둘을 대비해 <빅토르 위고>가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③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보며 같은 자세로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을 마주 보게 배치해서 로댕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죠?

④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근경의 사진과 합칠 때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했다? 그런 내용은 없죠? 그리고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사진도 없어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선지입니다.

⑤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한 것은 대리석상과 청동상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 감광액을 사용해 피사체들의 질감을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해서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했죠.

3. 다음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학습활동

스타이컨의 작품을 감상하고 글을 써 보자.

예전에 나는, 사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진이 예술 작품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을 보고, ⓐ 사진도 예술 작품으로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라는 스타이컨의 생각에 동감하게 되었다. 특히 ⓑ 회화적 표현을 사진에서 실현시키려 했던 스타이컨의 노력은 그 예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 스타이컨이 빅토르 위고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창작의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 스타이컨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할 것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을 예술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한 스타이컨의 창작열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 ①, ②, ③번까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④번에서, 스타이컨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은 지문 어디에도 없죠? 뭐가 어디에 종속된다는 말 자체가 지문에 없어요. 그렇기에 간단히 ④번을 체크할 수 있었을 겁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 : ①

① 이 소설가는 개성이 살아 있는 문체로 유명하다.
② 아궁이에 불씨가 살아 있으니 장작을 더 넣어라.
③ 어제까지도 살아 있던 손목시계가 그만 멈춰 버렸다.
④ 흰긴수염고래는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 중 가장 크다.
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